

이흥재의 세상만사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보다 더 심한 ‘순실증’을 보이며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이때 금남로에 올라 퍼지는 노래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잔잔히 들어 보니 ‘아리랑 목동’의 노랫말을 바꾼 일종의 ‘노가바’(노래 가사 바꾸 부르기)다.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야~ / 꼭두각시 노릇하며 / 나라 망친 박근혜야 / 아버지랑 최태민이 / 제아무리 좋아도 / 동네방네 나라 꼴을 / 굶판 치면 되오리까.” 2절도 있다. “꼭두각시 앞세우고 / 뒤통 깨는 순실이야 / 말 못 타는 딸자식 / 제아무리 답답해도 / 동네방네 그네 팔아 / 뽕 뜯으면 되오리까.”

수년 전 예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였던가. 성명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름 풀이를 해냈는데 박 대통령은 말년 운이 안 좋다고 했다. 주역에 나오는 ‘택수곤괘’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택수곤괘(澤水困卦)는 ‘연못(澤)이 위에 있고 물(水)이 아래에 있으니 물을 댈 수가 없어 크게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점괘가 맞은 것일까? 지금 모두가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요구하고 있다.

‘미르 재단’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할 때 나는 직감적으로 이게 대통령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미르’는 ‘용’(龍)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용포’(龍袍 : 임금의 입던 옷) 또는 ‘용안’(龍顏 : 임금의 얼굴)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은 과거 왕조시대 임금의 상징 아니었던가.(일부 정치평론가들이 사이비 교주였던 최태민을 의식해서 ‘미르’를 ‘미륵’과 관련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일토당도않은 예가다.)

‘빨간 펜’은 빙산의 일각

우리 선인들은 은하수를 ‘미리내’(미르+내)라 했다. 용이 살고 있는 강이라는 뜻이다. 단순히 우윳빛을 띠다 해서 ‘밀키웨이’(Milky Way)라 부르는 서양에 비해 ‘미리내’는 얼마나 상상력이 빛나는 단어인가.

최순실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나는 ‘우리말을 더럽힌 죄’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미르’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오염시킨 죄다. 과거에도 그런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두환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짓밟아 놓고도 ‘정의사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정의’라는 단어를 더럽혔다. 최태민·박근혜의 구국봉사단 또한 마찬가지로

지다. 위태로운 나라를 구한다는 ‘구국’(救國)이라는 말은 그들이 사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좋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구국’은 한낱 천박한 단어가 되고 말았다.

요즘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최순실 얘기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서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의 최측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그대로 빼고, 이 때문에 문화전당 예산도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전당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의 내년 예산 1278억 원을 전액 문화전당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는 민주당 박해자 전 의원의 주장은 백번 맞는 말이다.

‘일도 아무 삼백’이란 말이 있다. “들통이 나면 우선 도망치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백’을 동원하라.”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최순실과 차은택은 이런 범죄자들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온갖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죄상이 하나하나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연설문을 고친 ‘빨간 펜’정도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들의 마수(魔手)가 뻗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평창올림픽마저 그들의 축재(蓄財) 수단이었다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에 더욱 불을 붙이고 말았다. “무엇으

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 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대통령의 이 말은 지금 수많은 패러디를 낳으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리가 탄 뒤 국제대회 성적이 확 떨어졌다는 명마(名馬)가 말한다. “이러려고 정유라 태워 줬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최순실은 위대한 여인

소설가 김영하(48)는 이렇게 썼다. “쏟아지는 뉴스보다 재미없는 소설을 쓰겠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자니, 내가 이러려고 소설가 되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운 나날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칼럼을 쓴답시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나도 이러려고 기자가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패러디는 이게 아닐까 싶다. “내가 이러려고 투표했다. 자괴감 들고 괴로워.” 박근혜·이정현을 찍었던 사람들까지도 요즘엔 손목을 자르고 싶다 하는 판이니.

박근혜 대통령은 일찍이 부모를 총탄에 보낸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사태로 우리 모두는 그녀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됐다. 우리들의 참담하고 허탈한 심경을 그 뒤 있어 달래 줄 것인가.

‘멘붕’ 상태에 빠진 우리를 그나마 위무해 주는 것은 몇몇 패러디와 신랄한 풍자뿐이다. “옛날 헬-조선에 담겨 성을 가진 공주가 살았는데 닭과 비슷한 지력을 가졌다”로 시작되는, 연세대생이 썼다는 고대소설 형식의 ‘공주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시기꾼 기질과 영험함으로! 국정을 농단하여 조선을 복속시키고! 그 나라의 이름을 헬조선으로 개명하고! 순실여왕이 되었구나~(일썹)” 어느 소리꾼이 지었다는 창작 시사 판소리 ‘순실가’.

동영상을 통해 판소리 ‘순실가’를 들으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참에 ‘카톡’에 이런 메시지가 날아온다. ‘최순실은 위대한 여인이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그녀가 왜 위대한 여인인가? “일거에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으로 하여금 박정희 망상에서 깨어나게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 삼인방도 단숨에 제거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 앞에 머리 숙이게 하고...”

하지만 박 대통령은 끝까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는 듯하다. 여야 합의로 총리를 뽑아 달라고 했지만 2선 후퇴라는 말은 끝내 꺼내지 않아 시간 벌기를 꿈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쩌거나 콘크리트처럼 단단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없이 떨어지더니 한 자릿수인 5%까지 추락했다. 누가 말했는가. “배터리(축전지)도 5%면 갈아 끼워야 한다”고. <주필>

미국 선거 ‘코리안 파워’

나주 출신 최석호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등 13명 당선



미국 전역에서 현지시간 8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공직 선거에서 한인 정치인 13명이 당선되며 ‘코리안 파워’를 과시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시를 중심으로 한 주 하원 68선거구에서 출마한 나주 출신 최석호(미국명 스티브 최·공화·사진) 어바인 시장은 9일 오전 현재 7만

8952표(60.8%)를 차지하며 사실상 당선됐다. 선거 결과는 2주 안에 최종 확정된다. 최 당선자는 10일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0년 주 하원 68선거구에 출마했다가 예선에서 패한 그는 ‘어바인의 재선 시장’이란 타이틀을 달고 이번 선거에 나서 성공했고, 앨프리드 송·영 김 전 의원에 이어 한인으로는 3번째로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에 올랐다.

나주시 다도면 출생인 최 당선자는 광주교와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국무부가 파견하는 평화봉사단의 한국어 강사로 뽑혀 1968년 미국에 이민했다.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남가주대(USC)와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UCI)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시장 재직 중 고향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보여왔으며 최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방문해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un@·연합뉴스



가발 벗은 차은택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가 10일(오른쪽)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정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은 9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리는 차씨. 검찰 관계자는 “오른쪽은 평소 착용하던 가발을 벗은 모습으로 두 사람 모두 차씨가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한미동맹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통령님 말씀에 100% 동의하며, 북한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한국과 굳건하고 강력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부터 10여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박 대통령이 “현재 한미동맹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

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역대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다. 앞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굳건히 해나가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당선인도 동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제서야? 검찰,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10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 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우 전 수석 자택에 검사와 수사

관 등을 보내 각종 증거물을 확보했다. 특히 압수물에는 우 전 수석과 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묵인·

방치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한편 검찰은 이제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청와대 업무와 관련해 주도한 ‘논현동 비선회의’ 초기에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 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농성동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 · 사무실 · 병원 등 최적입지

▶ 수익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팍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 중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교정노트 ▶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 · 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임대공장 업주의 희소식!!!

자본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공장을 갖고 싶습니까?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증권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 2016. 12월 19일(월) ~ 2017년 2월 4일(토)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earning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